민주 광주서구청장·해남군수 공천 어떻게 되나

서구 단일후보 확정이나 교체냐
해남 차점자 낙점이나 재공모냐

지역 의견 모아 최고위 논의 거쳐 최종 결정

유력한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였던 전주언 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인 김충식 현 군수가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후보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각기 한 명씩 남은 경선 후보를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인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전략공천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장 후보 경선**=21일 전주언 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경선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청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안 자체에 별다른 정치적 배경이나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경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전 청장을 배제하고 김선옥 예비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하는 방법과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전략공천 등이다.

이와 관련, 광주 국회의원들은 21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서구청장 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은 우선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영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서구청장 후보 선정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의견을 모아 중앙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남군수 후보 선정**=민주당 해남군수 후보 선정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이 21일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충식 해남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김 군수가 이날 오후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경선 차점자나 재공모 등을 통해 해남군수 후보를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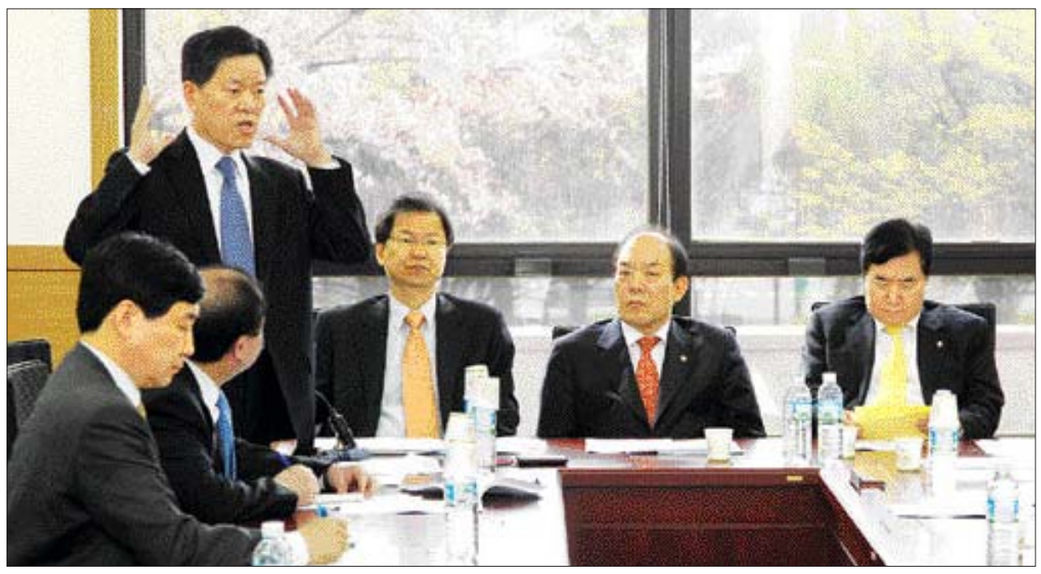
하지만, 재공모를 하는 것은 기존의 경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데다 정치적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단 지역 위원장과 전남도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최종 후보 결정은 최고위에서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은 문제없나**=현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2~3명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A 단체장의 경우, 측근들이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B 단체장과 C 단체장도 자체 사업과 관련,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확정된 후보라도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등 현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관할 시도당의 의견을 참고한 뒤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 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후보 교체는 해당 시·도당과 중앙당의 협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쇄신의원 모임에서 주승용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 동맥경화·말기암 환자"

민주 '쇄신 모임' "경선 파행·야권 연대 무산 정대표 책임" 공격

민주당 '쇄신모임'은 21일 당 지도부에 전남·북지사 및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촉구하는 한편, 야권연대 협상 결렬에 따른 정세균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주류 측을 정면 공격했다.

비주류 협의체인 '쇄신모임'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권파에 맹폭을 가했다. 이 자리에선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경맥동화"(이석현 의원), "말기암에 걸린 모습"(강창일 의원) 등의 거친 표현이 쏟아졌으며, 추미애 의원은 "각종 공천잡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대응 수위를 놓고도 쇄신정풍 운동 제안, 지도부 사퇴론 등 다양하게 거론됐다. 쇄신모임 공동대표인 천정배 의원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권연대 결렬, 광역단체장 경선 무산, 시민공천배심원제 실패에 대해 정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권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야권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전남도지사 등 세 지역의 경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와서 경선을 안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 연대 결렬과 관련, "국민참여당의 무리한 요구 탓도 있지만 지도부의 무능과 전략부재도 한 몫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였던 소통 부재와 당내 민주주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자파 이기주의 등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3일 예정된 당무위회의 취소에 대해 "뚜렷한 명분과 근거 없는 당무회의 취소결정은 쇄신모임이 그토록 비판해온 정세균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전횡과 다름 없다"며 "당무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지역의 여론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미 실패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심원제 물 건너간 무안군수 공천은?

후보자 경선방식 이견으로 진통…경선 무산 가능성도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됐던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경선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중앙당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21일에도 무안군수 후보 경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에 결정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가 어려워진 만큼 경선 방법을 변경할지 또는 경선이 불가능할 경우 전략공천을 시도할지 등을 최고위에서 판단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 무안이 지역구인 이윤석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중앙당에서 어떻게 공천을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도 "일정상으로나 후보자들 상황으로 봐서 사실상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가 어렵다는 것이 대세다"고 말했다.

중앙당 선관위가 이 같은 분위기로 흐른 것은 지난 18일 서삼석, 정해균 경선 후보를 당사로 모두 불러 경선 방법을 논의했으나 양 후보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

이날 선관위에서는 전문배심원 투표 50%에 나머지 50%를 당원전수조사, 당원여론조사, 군민여론조사 등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의 변형된 시민배심원제를 제시했지만 정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 후보 측은 국민참여경선을 제시했으나 정 후보 측에서는 모든 것을 중앙당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안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된 중앙당의 입장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경선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나 후보자들간 경선방법에 대한 이견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한 상황이나 일각에서는 경선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선관위는 18일 실시 예정이었던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 현지 배심원제 추출 과정에서 조직 개입 의혹이 있다며 경선 일시를 무기 연기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 서종식 완도 김종식 진도 이동진 고흥 박병종

민주당 단체장 후보 확정

민주당 전남도당은 21일 "완도군수 후보에 김종식 현 군수를, 광양시장 후보에 서종식 예비후보를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또 "진도군수 후보에 이동진 예비후보, 고흥군수 후보에 박병종 현 군수가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경선을 비롯한 이들 5개 지역은 당원여론조사 50%와 주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경선이 실시됐다.

경선 결과 완도 김종식 후보는 73.04%의 지지율로 26.96%를 얻은 박현호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으며, 고흥 박병종 후보는 65.82%로, 34.18%을 얻은 장철우 후보를 눌렀다. 진도는 이동진 후보가 50.06%로, 49.94%를 획득한 김경부 후보를 0.12%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제쳤고, 광양 서종식 후보는 37.95%를 얻어 정현복(34.77%)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다.

서종식 후보

김종식 후보

이동진 후보

박병종 후보

한편, 이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확정된 김충식 해남군수는 공사 수주와 관련, 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후보직을 사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